



코스피	2503.73 (+7.31)	코스닥	891.61 (+18.56)
금리 (국고채 3년)	2.22 (+0.05)	환율 (원/달러)	1062.70 (-2.10) (15일)



**[산업]**  
“오디오 경력 합치면 300년 넘어요”  
09

## ‘가상화폐 규제’ 한발 물러선 정부 “거래소 폐지안 당장 안꺼내”

### 충분한 협의 후 결정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초강수 규제인 ‘거래소 폐지’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실명제 추진 등 기존 규제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사실상 불발되자 다시 투자자가 모여드는 모습이다. 빚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전 9시 20분 1890만원이었다가 정 경제조정실장의 브리핑을 기점으로 오전 10시 1989만원까지 뛰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금융 CEO 후보 선정기준 공시 의무화

### 금융혁신 추진방향

금융사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키로

CEO 제왕적 권한 약화 임추위서 대표 영향력 배제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대한 선정기준을 공시해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은 배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지주사 회장 ‘셀프연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

영됐던 지배구조를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로 규정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재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CEO 후보군에 대한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셀프연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외이사나 주주제안권 등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는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은 현재 0.1% 이상에서 더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보수나 채용 관행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해서는

개별보수를 공시해야 하며, 보수 자체도 적절한 수준인 지 평가한다. 금융권 채용비리는 적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기관장 해임까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내달 중으로 발표된다.

일단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며,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조해온 포용적 금융 방안도 이번에 대거 포함됐다.

편의점 등 소매결제자 집중된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이달 중 나온다. 상반기 중 카드사에 대한 원가 분석 작업을 마치면 이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좀 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ATM(금융자동화기기)·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민주당-재계, 현안경청 간담회 노사 현안 ‘사회적 대타협’ 시동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5일 최저임금인상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연착륙과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즉 혁신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을 시작으로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앞으로 현안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수석부대변인, 국회 환노위 간사인 황정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신박재 NXP 반도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 앞서) 회원사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 전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업 활

성화, 노동 이슈 등 6가지 과제가 제시됐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하거나 정책적응을 위해 ‘완급조절’이 필요한 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에는 규제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에 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될 것 같다”면서 “여기에 오늘 드리는 건의들도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되도록 노력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가와 노동자가 서로 협력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타협과 한국형 사회연대모형을 만드는 데 대한상의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며 “일자리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나누기, 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엔 전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이해관계를 잘 조정, 모두 윈윈하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21cindium@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뉴스

## 추가결함에 집단소송까지... 옆친데 덮친 인텔

### PC 원격 관리 기능도 문제

인텔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추가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인텔 CPU에 초기 결함이 있어 인텔이 생산한 대부분의 CPU가 멜트다운과 스펙터라는 보안 결함을 가졌다고 밝혀진데 이어 AMT 결함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멜트다운은 해커들이 하드웨어 장벽을 뚫고 커널 메모리에 접근하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쳐낼 수 있는 결함으로, 인텔 제품

만 해당된다. 스펙터는 애플리케이션에 보호된 메모리에서 정보를 빼낼 위험이 있는 것으로, 모든 CPU 제조사가 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보안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이뤄졌지만, 업데이트를 한 PC에서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지속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윈도 운영체제(OS) 환경에서 업데이트 후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쓰기 성능이 30%로 줄었다며 온라인에 벤치점수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텔은 성능 저하가

발생하긴 하지만 영향이 ‘작다(small)’고 일축하고 있다.

인텔의 세노이 총괄부사장은 “SSD를 사용하는 8세대 플랫폼에서는 성능에 끼친 영향이 적었다”며 “다양한 워크로드를 아우를 때 영향은 최대 6% 이하일 것이며 복잡한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고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결함은 기업 각 부서에서 PC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텔 펌웨어인 AMT에서 발견됐다. 이 기능은 OS에 관계

없이 PC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저장된 파일을 복사 또는 삭제 가능하다. 많은 권한을 내주는 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지만 초기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핀란드 사이버 보안업체 F-Secure는 해커가 침입하면 30초 안에 데이터 접근은 물론 암호화 장벽, 운영체제 보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용 펌웨어기에 한 대의 PC가 해킹당하면 기업 전체 PC도 위험에 처한다.

〈9면에 계속〉

/오세성 기자 sesung@